

# 해외 판로 막힌 기업 애로 해소

### 전북중기청, 도내 수출바우처기업 '온라인 화상상담회' 참여 업체 모집

### 올 하반기 예비 참여기업이 대상, 국제·지방세 체납기업 등은 참여 제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중기청)과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 전북코트라지원단(단장 이광일, 이하 코트라)은 공동으로 수출바우처 수행기업 및 예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회'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러시아,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 184개국의 입국금지 또는 제

한 조치로 수출이 곤란한 상황에서 해외 판로가 막힌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가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등 수출 주요 지원기관 3곳이 손을 맞잡고 추진하는 첫 번째 상담회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으로 수출바우처 선정기업 또는 기신청기업(미신청) 및 '20년 하반기 예비 참여기업

이며, 채무불이행기업, 국제·지방세 체납기업 등 특정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정부의 포스트코로나 대책에는 언택트(비대면) 산업 육성이 핵심과제"라며, "향후 비대면 분야는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므로, 지역 기업은 비대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상담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2일 한국전통문화의전당 공연장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전망'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 가운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 특강에 초청돼 강연을 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K-경제, 세계적 롤모델'

경진원, 김방희 소장 초청 특강  
"핵심산업·수출·일자리  
변수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2일 한국전통문화의전당 공연장에서 경진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계자를 초청해 '코로나19 이후 경제 전망'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현재 KBS1 라디오 '성공에감 김방희입니다' 진행자인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의 '코로나19 이후 경제 뉴노멀(New-Normal)'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 소장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국제사회의 변화에 주목했다. 세계화와

이념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변화하면서 자국 중심의 실용주의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분야가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 김 소장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 대처를 훌륭하게 해냈는데, K-방역과 K-경제가 세계적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한국의 핵심산업과 수출, 일자리 변수에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새로운 경제 전망에 대한 좋은 강연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도민을 초청

하지 못해 아쉽다"며 "글로벌 경제 환경과 정부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전북 경제 특성을 살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역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무료특강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강연장 방역 및 방문객 확인을 철저히 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사전에 등록한 신청자만 참가자를 제한했다.

한편, 경진원은 직원내부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도내에서 만나기 힘든 명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분야의 전문 인사를 초청해 노하우와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과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광석화처럼 빠른 '번개세차'로 지역경제 살린다

국민연금공단, 저소득층 자립 지원 위한 협약 체결  
3000만원 상당 모아 자활센터에 세차 차량 기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일 공단본부(전주시 덕진구)에서 '지역내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번개출장세차 업무 협약식 및 차량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및 전북광역자활센터, 전주지역자활센터, 정읍지역자활센터 등이 참여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는 출장세차가 가능하도록 3천만 원 상당의 세차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지원하고, 번개출장세차서비스 자활사업단(전주·정읍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은 기증받은 차량으로 3개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부터 세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북광역자활센터는 협력사업의 운영을 총괄하고, 전주·정읍지역자활센터는 번개출장세차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약계층의 기술숙련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을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이승철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전주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자활세차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셔서 저희 자활세차사업단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매진해서 자활기관과 공공기관이 달성하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과 차량 기증을 통해 소득활동 참여가 어려웠던 지역 주민에게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원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 저소득층에게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임상시험 기술개발 기여 인정

### 전북대병원 김민걸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연계 가능 의료 IT 무궁무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 김민걸 교수(사진)가 지난달 28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주최로 열린 2020 임상시험 유공자 정부 포상에 '임상시험 기술개발부문' 임상시험 유공자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국내 최초 공동데이터 모델을 활용한 임상시험 지원 플랫폼 구축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역동적 동의체계 지원 차세대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임상시험 가속화를 위해 차세대 임상시험 지원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임상시험 설계 지원, 대상자 모집 가속화 등이 가능해져 국내 임상시험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수행 효율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임상시험 데이터의 실시간 추적, 데이터 이력 관리를 통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차세대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에 기여했다.



수상자인 김민걸 교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원격 모니터링 등 임상시험에 연계할 수 있는 의료 IT 분야가 무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임상시험에 활용해 국내 임상시험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전북대학교병원의 임상시험센터장, 임상약리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0여건의 초기 임상시험 수행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의 세부 과제인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등 차세대 신약 임상시험에 활용되는 초기 임상시험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의 연구자 주도 1상 임상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신소득

### 작물 육성 '앞장'

### 공덕농협 미니오이 출하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2일 김제 공덕농협(조합장 문홍길) 산지유통센터와 함께 신소득작물인 미니오이를 재배·상품화해 10톤 전량을 롯데마트에 전수판매한다고 밝혔다.

미니오이는 트윈핏(백다다기계통) 품종으로 일반 오이에 비해 작으나 껍질이 얇고 아삭해 생식용이나 피클, 오이지, 소박이 등으로 적합하다.

공덕농협은 조합원의 소득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신소득 농산물을 지역 로컬푸드나 롯데마트에 상품화해 납품하고 있다. 이번 미니오이도 이러한 차원에서 공덕농협이 직접 나서고 전북농협과 롯데마트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판매를 적극 지원하는 구조이다.

문홍길 조합장은 "농업인은 생산에 집중하고 농협은 신소득 작물에 대해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인 소득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정부, 지난 4월까지

### 재정 45% 조기집행

### 코로나19 적극 대응 위해

정부가 조만간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4월까지 중앙재정의 45% 가량을 집행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비상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분기 이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5개 정부부처와 33개 공공기관 등이 올해 중앙재정 주요사업비 307조8000억원 가운데 44.7%에 해당하는 137조7000억원을 4월까지 집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한 1차 추경은 5월까지 주요사업비 9조9000억원 중 89.7%(8조9000억원)를 집행했다. 이는 당초 기재부가 내걸었던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5% 집행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2차 추경도 14조3000억원 중 93.6%(13조3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한 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며 "이를 재정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할 3차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마무리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토양관리의 중요성' 알린다

### 농진청,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키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해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규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근거, 농업인에게 토양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토양 관리요령을 익히도록 해 작물재배에 적합한 토양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등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경작지이며, 도농업기술원 및 시도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이 가능한 작물이 해당된다.

농촌진흥청은 작물 재배지별 다양한 토양 특성을 반영한 토양 화학 성분 기준과 1, 2차 토양검정 결과를 비교해 3차 적량여부를 최종 관측하는 이행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작물재배 전 실시한 토양검정에서 토양양분이 높게 나올 경우

작물재배 후 토양검정을 추가로 실시해 관측한다. 점검항목은 토양 pH(산성 또는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유기물, 유효 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이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경작지 소재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현재 토양상태에 따른 적절한 비료사용량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재배시기가 촉박해 토양검정이 불가능할 경우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휴도랩(sulda.go.kr)'의 작물별 표준사용량을 활용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김경화 팀장은 "올해 도입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으로 농업의 생태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규정 시행으로 농업인의 토양 양분 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된 만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난 1일 열린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신규직원 채용식.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지역인재 10명 채용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1일자로 6급 신규직원 10명을 채용했다고 2일 밝혔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매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전북지역 출신 지원자 우대 채용을 실시해오고 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0명의 신규직원들은 지난 1일 임용장 교부식을 마치고 2일부터 전북 관내 각 영업점에 배치돼 근무를 시작했다.

장기 본부장은 임용장 교부식에서 신규직원들에게 "농협은행의 새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한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근무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농협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며 "지역과 함께 동행하는 농협은행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전북도민들과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농협은행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